

“내달 LA 노선 취항... LCC 한계 넘어 HSC 영역 개척”

〈저비용항공사〉

〈하이브리드항공사〉

에어프레미아 유명섭 대표 간담회

노선 추진 현황 등 향후 비전 공유
LA 시작으로 중장거리 노선 확장
5년 후 연매출 8600억 달성 목표

“에어프레미아는 그저 저비용항공사(LCC)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항공사(HSC)로 고품질 서비스와 합리적인 비용을 동시에 갖춘 국내 최초의 항공사로 다가갈 것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유명섭 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10월 29일 LA 노선 취항을 예고하며 중장거리 전용 항공사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에어프레미아는 1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알레그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LA노선 포함한 신규노선 추진현황과 향후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어프레미아는 LCC로서 분류되 기보다 HSC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강하게 피력했다. HSC는 FSC와 LCC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항공 분류로, FSC의 고품질 서비스와 합리적 이용비용을 고



유명섭 에어프레미아 대표가 에어프레미아의 LA 노선 취항 소식과 항공사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객들에게 제공하는 LCC 장점을 한데 모은 개념이다. 유명섭 대표는 “에어프레미아의 규모는 LCC로 여겨지지만 이제는 국내선을 운영하지 않고 국내 유일의 중장거리 전용 하이브리드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며 “지난 7월 운항을 시작한 첫 국제선 싱가포르 노선에 대한 이용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사 창립 초기부터 주력해온 LA 노선을 오는 10월 29일 취항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중장

거리 노선을 지속해서 확장하며 5년 후 매출 8600억 원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국내선을 운영하지 않고 중장거리 노선 확충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LA노선을 주 5회 운항할 예정이다. 항공권은 이보다 약 한 달 앞선 9월 말부터 판매한다. 또한 2025년까지 총 10대 기체를 확보해 뉴욕, 파리 등 대도시 위주로 노선을 확장하고 현재는 적자 상황이지만 항공기가 5대 이상 되는 2024년에는 흑자 전환

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장거리 취항지로 LA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말에 유 대표는 “에어프레미아의 전략은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새 수요를 만드는 것이며 고객이 꾸준히 많은 LA에 취항하면 탄력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는 2022년 6월 24일부터 국내 투자기관 및 LA 교민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고, 이를 통한 재무 구조를 확보한 바 있어 LA 노선에서 이익을 기대해볼만 한 상태다.

유 대표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장거리 노선을 늘려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것”이라며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는 없애고 이코노미 클래스에만 집중해 ‘가장 편리한 이코노미 클래스’ 운항을 지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에어프레미아가 기존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의 중간 클래스인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신설하고 전체 300석 중에 56석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좌석 간 거리가 42인치(약 1.1m)로 환경을 위한 다화용 용기를 사용한 기내식도 제공된다. 특히 에어프

레미아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가격을 비즈니스 클래스의 절반 수준, 이코노미는 FSC와 비교해 80% 수준에 제공해 가격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의 전략은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단일 기종 원칙을 통해 운항이나 정비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보잉 787-9 드림라이너는 보잉사에서도 우수한 기종으로 꼽히며 직항으로 13시간 35분가량 걸리는 애틀랜타와, 13시간 이상 걸리는 바르셀로나까지 직항으로 운항 가능한 중장거리 기체다.

유 대표는 “합병 이슈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전 노선을 커버할 수 있고, 신규 항공기라 기존 동급 항공기 대비 15% 이상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좌석당 운항 비용도 12% 줄일 수 있어 ESG 경영실전은 물론 수익성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기를 항공기 5대가 안정적으로 운항을 시작하는 2024~2025년쯤으로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T, AI 기반 기지국 지능화... 데이터 속도 ↑

AI 무선망 적응기술 자사 상용망 적용 “위성통신·오픈랜 등 6G 기술개발 가속”

SK텔레콤이 이동통신 기지국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무선망 성능을 향상시키고 6G 진화 기반을 강화한다.

SKT는 글로벌 이동통신 네트워크 제조사인 에릭슨과 기지국 지능화를 위한 AI 기반 무선망 적응 기술에 대한 성능 검증을 마치고, 해당 기술을 자사 상용망에 본격 적용해 네트워크 성능을 고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SKT가 이번에 적용한 AI 기반 무선망 적응 기술은 기지국의 전파가 닿는 범위인 셀(Cell)과 인접 셀의 상호 전파 간섭효과를 파악하고, 사용자 단말기의 무선 환경 정보를 조합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주변 기지국의 무선자원 활용 정보를 기반으로 목표 품질지표를 상황에 맞게 동적으로 변화시키면 스마트폰 단말이 기지국 범위 안에서 실시간으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다.

기존 이동통신 구조에서는 네트워크의 목표 품질지표를 하나의 고정된 값



SK텔레콤이 통신장비 제조사 에릭슨과 기지국 지능화를 위한 AI 기반 무선망 적응 기술을 자사 상용망에 적용했다. /SKT

으로 정해 기지국 변경 안에 있는 개별 단말기의 무선상태, 장소에 따른 서비스 환경 차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SKT는 기존에 보유한 AI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탱고’(TANGO)에 이어 최근 AI 기반 코어망 기술인 스마트 페이징을 개발했으며, 이번에 국내 최초로 기지국 장비에 AI 솔루션을 적용해 이동통신네트워크 전 영역을 첨단화·지능화 할 수 있는 진화 기반을 마련했다.

SKT는 AI 무선망 적응 알고리즘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용망 무선환경 빅데이터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기법으로 학습

했다. SKT는 5G 기지국을 기반으로 AI 기술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6G 네트워크를 위한 AI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SKT는 양자암호통신에 이어 이번 AI 기반 무선망 적응 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6G 주요 후보기술을 상용망에 선제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위성통신·오픈랜 등 6G 후보기술의 연구개발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종관 SKT 인프라기술담당은 “6G 핵심 기술의 하나인 AI를 통한 무선망 성능 향상은 네트워크 진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관련된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노력을 지속해 6G 진화의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린 체리안(Airin Cherian) 에릭슨 5G 개발 및 성능 부문 총괄은 “SKT와의 이번 협업으로 AI 기술을 통해 무선 활용을 최적화해 상용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향후 LTE 및 5G 기지국의 다양한 기능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GPS 조감도

울산 지피에스, LNG/LPG 겸용 발전소 기공식

“넷제로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 달성할 것”

1227MW규모... 사업비 1조4000억

SK가스자회사인 ‘울산 지피에스’는 15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세계 최초 1227MW규모의 LNG/LPG 겸용 발전소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울산지피에스는 향후 LNG/LPG겸용 발전소를 넘어 수소발전에도 도전하고, 고객사에 최적의 Utility Solution을 제공하는 ‘Net-Zero Utility Solution Provider’라는 미래 Vision을 선포했다.

기공식에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윤병석 SK가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울산지피에스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SK가스가 99.48% 출자해 부곡용연지구 139,184m2(약 4만 2천평) 일원에 건설중인 울산지피에스는 총사업비 약 1조4000억원이며, 올해 1월 SK에코엔지니어링과 EPC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KB국민은행 등과 7520억원 규모의 PF 약정을 체결했다. 현재 공사 공

정률 25%이며, 오는 10월 송전선로 착공과 내년 1분기 주기기 설치를 거쳐 2024년 8월 상업기동을 할 예정이다.

SK가스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울산 지피에스는 차별화된 세가지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 최초의 LNG/LPG 겸용 발전소로, LNG 수급 불안 시 LPG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발전소다. 두 번째는 최신 고효율 설비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인정받아 올해 가스발전소 최초로 ESG 최고등급인 G1 등급의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SK가스가 추진 중인 수소를 활용해 무탄소에도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기공식에 참석한 조승호 울산지피에스 대표이사는 “울산 지피에스는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Net Zero Utility Solution provider’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정윤 기자

KT, ‘LTE-M’ 기술력 세계에 알린다

〈초고속해양무선통신망〉

아·태 국제해양디지털 콘퍼런스 참가

KT가 초고속해양무선통신망(LTE-M)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5~16일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해양디지털 콘퍼런스’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및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지역 20개

국의 학계, 산업계 등에서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콘퍼런스의 세부 프로그램은 해양 디지털 기술 교류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간 상호 협력방안의 5개 주요 세션으로 구성된다. KT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및 해상재난안전통신 제공용 LTE-M 구축 및 운영 현황, 송수신기 등 장비 등을 선보인다. /채윤정 기자